

보도 일시	2023. 4. 3.(월) 15:00	배포 일시	2023. 4. 3.(월) 15:00
담당 부서	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 김충기 (064-909-3920)
		담당자	전문관 한경훈 (064-909-3920)

4~6일 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, 강풍·풍랑 유의

- 남부 120mm 이상, 산지 20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, 호우특보 예상
-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강풍·풍랑 안전사고 유의



[4월 5일(수) 예상 기압계 모식도]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전재목)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, 4일(화) 오후부터 6일(목) 새벽까지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, 강한 바람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며,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
[강수 전망]

- 제주지방기상청은 4일(화)부터 6일(목)까지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에서 유입되는 매우 강한 남~남서풍에 의해, 많은 양의 수증기가 제주도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였다.
- (호우) 4일(목) 늦은 오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, 저기압이 북동진하면서 점차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5일(수) 아침부터 밤 사이, 제주도산지와 남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, 돌풍과 천둥·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하였다.
 - 특히, 6일(목) 새벽까지 제주도남부(중산간)에는 120mm 이상, 제주도산지에는 200mm 이상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, 반면 북부 해안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(10~40mm)의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따라서,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하천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으며,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겠으니,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, 등산객 또는 야영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(4~6일) >

- 제주도(북부해안 제외): 30~80mm(많은 곳 남부 120mm 이상, 산지 200mm 이상)
- 제주도북부해안: 10~40mm

- (안개) 한편, 비가 오는 곳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,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,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- (변동성) 이번 강수는 저기압의 발달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, 강수시간과 강수량, 강수집중구역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겠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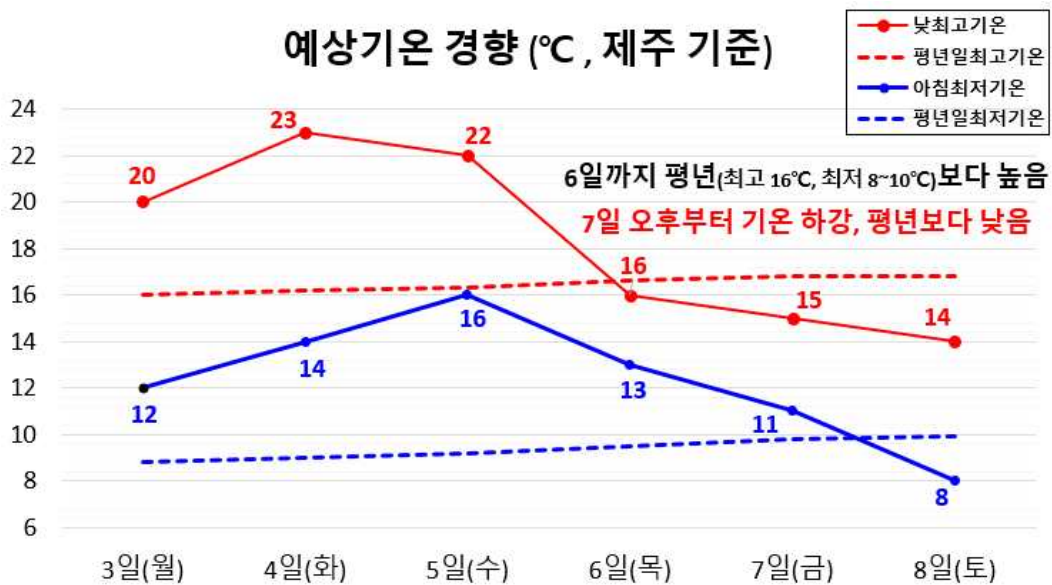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4일(화) 오후부터 5일(수)까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/h(20m/s) 이상(산지 90km/h(25m/s)이상)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.
- (풍랑) 4일(화) 새벽부터 제주도남쪽바깥바다, 오전부터는 제주도남쪽안쪽바다, 남해서부서쪽바다와 제주도앞바다(북부앞바다 제외)에는 바람이 30~60km/h(9~16m/s)로 점차 강해지고, 물결이 1.5~4.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.
- 특히, 5일(수)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남쪽안쪽바다와 남해서부서쪽바다, 제주도앞바다(북부앞바다 제외)에는 바람이 45~70km/h(12~20m/s)로 매우 강하게 불고, 3.0~5.0m로 매우 높은 파고가 예상되면서 풍랑경보 변경 및 제주도북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 발표 가능성이 있겠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- 또한, 5일(수)부터 6일(목) 새벽 사이 제주도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.

- (유의사항) 6일(목)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하우스, 간판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와 높은 파고에 의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, 항공기와 선박편의 운항에 영향이 예상되니,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기온 전망]

- 6일(수) 오전까지 따뜻한 남풍이 한라산을 넘어가면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평년(아침최저 8~10℃, 낮최고 16℃)보다 기온이 4~7℃ 이상 높겠고, 7일(금) 오후부터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, 기온의 변화폭이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

[4월 3일(월)~8일(토)까지의 제주 예상기온 경향]